

## 敎養國語敎育의 現況과 改善

金 鎮 國  
(UNIC 國語敎育科 助敎授)

현재 일부 大學에서는 敎養國語 學點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敎養國語가 지니고 있는 敎育的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경시 또는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그러한 原因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國語敎育의 現況

敎養國語를 對象으로 두고 볼 때 현재의 大學 風土에는 國語 담당 교수와 일반 학생, 교수와 大學當局 사이에는 넘지 못할 깊은 對立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국어敎育을 담당하는 敎授들은 國語라는 敎科目을 통해, 첫째 專門 知識人으로서의 대학인에게 국어 사용의 기능과 국어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올바르게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둘째 국어를 통하여 思考力, 判斷力 및 創意力을 함양하고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길러서 원만한 유능한 개인과 指導的 國民으로 성장하게 하며, 세계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의 未來를 개척하고 사회 발전의 선도자로 참여하게 하며, 세계 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民族文化의 전통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

여 민족문화의 발전과 창조에 기여하게 하는 重要且大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國語에 대해 회의와 불만스러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수들이 믿고 자부하고 있는 理念的 目標과 價値 意識은 理想에 불과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들은 국어를 왜 大學에서까지 또 배워야 하는가를 회의하고 있으며, 敎育 결과 내지 학습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과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다.

大學 學事 行政當局은 국어가 實驗大學 以前의 敎育과정에서 가졌던 6학점을 3학점 또는 2학점으로 축소하고 外國語나 컴퓨터 강좌 등으로 대체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理工系와 醫學系 학생들의 이수 과목에서 교양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였거나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敎養國語가 지니고 있는 敎育적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경시 또는 무시되고 있는 現實의 原因을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 II. 國語教育은 必要한가?

大學의 敎養教育課程에서 國語는 文敎部 指定 必修 科目이 아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문제는 大學 자체의 의사에 달려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은 국어는 “재미가 없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강의 시간중에 英語나 數學 리포트 작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 더하여, 實驗大學體制 出發時 大學의 機能을 敎養教育 中心으로 전환한다는 命題下에 전공과목 개설 허용치가 축소되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시 전공과목의 이수 확대가 주장되고 이러한 요구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어 학점의 축소 내지 폐지를 운운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어를 경시하는 사고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교양국어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유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과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인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의 국어사용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경우 대학에서의 국어 교육의 경시나 폐지는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며,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政治人은 ‘遊說’를 ‘유설’로 말하고, 어떤 高位官吏도 원고를 낭독하면서 ‘改梭의 情이 보여 석방한다’는 말을 ‘개준의 정도가 보여’라고 읽고 있다. 수필 원고를 정탁받은 어느 원로 工科大學 교수는 「오로씨」와 「오로서」가 다른 단어인지 구별을 못하며, 하나의 문장을 원고집 5매까지 길게 늘어 놓고 있다. 일반 학생들에게 韓龍雲의 「秘密」이란 詩를 강의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비밀을 지키려 하였읍니다”라는 구절에서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10명이면 10명 똑같은 답을 한다. “한용운은 일제시의 독립운동가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독립운동 거사계획의 비밀이다”고. 그리하여 한용운의 詩속에 나타나는 「님」은 일경이나 왜헌병 또는 조선

인 매국노가 되고 만다. 「님」의 정체의 本質을 形而上學的으로 밝혀 주고자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한다.

이처럼 말하고, 쓰고, 읽고, 듣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지식인, 지식인들은 “한국의 아카데미 콘디션은 스킨라의 오소리티를 리젝트한다”는 등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생활에 내재해 있는 民族의 正體性을 부정하는 의식은 아무리 국어 순화를 부르짖어도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만연해 가고 있다.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민족 문화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것을 창조·발전시킬 만한 역량이 얼마나 함양되어 있는가를 문제삼기 이전에 우리는 일반국민의 생활 속의 언어 행위에 있어서 마저 심대한 부정적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13년 동안의 제도적인 국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어 학습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대학에서의 국어교육의 충실한 敎授와 또한 내실 있는 훈련이 요구됨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특히 국어 담당 교수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국어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육 결과가 언제나 성공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自問하면서 反省을 통한 교육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에서의 국어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가 곧 교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재의 대학교육 여건에서 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改善方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I. 國語教育의 問題點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나 전문 지식인의 언어, 즉 국어에 대한 태도나 기능적인 능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결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국어교육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大學의 入學에 최대의 목적을 두고 있는 中等學校의 교육이 야기하는 일반적인 병폐와 더불어 국어교육도 본래 지니고 있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국어교육이 현재 정하고 있는 教材·教授法·教育環境의 문제점들이 첨가되어 국어에 대한 경시 풍조와 국어 사용의 부정적 현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中等學校의 入試위주의 教育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유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의 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教材의 문제점

教材란 교육의 목표를 담은 그릇이자 그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教材의 내용 선정과 편성구조는 교육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어 교재에 대한 수강 학생들의 반응은, 한 조사 연구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비슷하여 새롭지 못하다(41%)'거나 '새롭기는 하나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못 된다(4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낳게 한 국어 교재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첫째는 편성 구조면에서, 둘째는 내용면에서 세부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하여, 국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理想的의 目標과 實踐的의 價値를 현재의 국어교육의 외적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具現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基礎로 삼고자 한다.

#### 1) 편성 구조의 문제점

교재 내용의 편성구조는 구체적으로 말하여, 구체적인 글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제시하는 大單元의 種類와, 그 種類에 적합한 글의 수를 결정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국 대학의 국어 교재에 있어 전체적인 편성 구조의 양태를 개괄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大單元의 種類를 살펴 보면, ① 논설문 ② 국어학 논문 ③ 고전문학 ④ 한문학 및 한자 ⑤ 현대문학 ⑥ 작문 등이 어느 대학의 교재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大單元의 다양한 종류는 국어교육

의 理想的의 目標의 세부 항목을 망라하여 완전하게 구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합목적적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等學校 특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大單元과 一致하는 이러한 單元 설정이 과연 大學의 현실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국어 강의 시간수는 일반적으로 週當 3시간, 16週로 48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강의수는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42시간뿐이다. 이처럼 이틀도 되지 않는 시간에 빈잡한 6가지 大單元의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教授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대학국어 교재에서 더우기 小單位 글의 수가 60 종에서 100여 종에 이르고 있을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하여 지나친 과목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효과적인 目標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교재 편성 구조를 심각하게 탐구하고 또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량적인 측면의 문제점과 함께,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전체와 국어의 연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개개의 대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글들의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첫번째의 수량적인 측면과 두번째의 질적인 문제를 종합하는 관점에서 이제 각 大單元의 구체적인 內容의 문제점을 밝혀 보기로 하자.

#### 2) 논설문(叢類)의 문제점

大學과 學問의 本質에 대한 이해, 民族的의 正體性 함양을 위한 민속과 역사의 理解, 全人의 人格 形成을 위한 哲學과 宗教의 이해, 현대 사회의 특성을 통찰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치학에 관한 入門의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은 국어 교재의 제 1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 이 논설문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어 담당 교수는 만물박사가 되거나 백과사전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류문화 전반에 걸친 지식을 담고 있는 논설문이 국어의 제 1 단원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과 국어의 연계성에 대한 무시와 무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양 필수 과목은 道具科目을

제외하면 대체로 국민윤리, 국사, 사회학, 자연과학사, 철학개론, 경제원론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할 학생들에게 10페이지 미만의 논설문을 국어 강의 시간에 읽힌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存在意味에 대한 이해와 학문의 본질과 방법론에 관한 이해는 현재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어 강의에서 學問全般에 걸친 논설문을 다루려 하는 과목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 3) 古典·現代文學 單元的 문제점

국문학이 민족문화의 가장 구체적인 具現物이며, 민족의 精神史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직관할 수 있으며, 美意識과 상상력의 전개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의 場이라는 점에서, 국문학은 국어 교육의 핵심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을 통하여 思考力·判斷力·認識力·創造力을 함양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정서와 고귀한 이념을 기를 수 있다고 할 때 국문학 單元的 內容 선정과 그 구조화는 가장 깊이 연구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교재들은 다음의 문제점들로 하여 위와 같은 국문학의 교육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첫째, 통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단순하게 나열함으로써 국문학의 전체적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둘째, 작품만의 나열은 강의 시간의 한계에 따르는 강의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 중등학교의 국어 교재 수록 작품과 중복되는 작품의 선정은 대학의 국어교육이 반복과 복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탄을 야기시킨다. 넷째, 현대 문학의 경우 1920~30년 시기의 작품에 내용 구성의 초점을 맞추므로써 대학생들의, 그들 當代의 文學現象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인 감수성을 외면하고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文學理論 및 詩學과 국문학 작품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교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서 文學의 이해를 천박한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 4) 국어학 논설문의 문제점

현재의 대부분의 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국어학 관계 논설문은 國語의 系統論, 國語의 發達史, 正書法, 漢字의 原理 및 15세기 中世 國語資料인 文獻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논설문들은 주로 國語의 表記法에 관한 문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國語表記法의 形成과 通時的 變移過程, 그리고 表記의 原理를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 되기에 미흡하다. 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과 民族의 正體性에 대한 뚜렷한 자각,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읽고, 듣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언어학 및 국어학의 지식을, 특히 현대 언어학과 국어학의 발전된 학문적 성과가 교재에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국어 교재에는 그런 점에서 언어의 기원 및 존재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글, 言語行爲 즉 의사전달 행위의 현상학적 이해, 언어의 諸機能과 構造를 해설해 주고자 하는 글, 國語의 意味論과 語彙論, 國語의 文章構造論, 국어의 語法論 등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言語 자체가 인간의 思考이며 그것이 곧 삶 자체임을 인식할 때, 이러한 국어학 관계 문장의 不在는 가장 우려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5) 작문 교재의 문제점

모든 국어교육의 실질적인 최종의 도달점은 作文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으로 펜을 들어 글을 짓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의사전달행위는 글을 짓는 행위이다. 글을 짓는 행위는 결국 삶 그 자체이며,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자아의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경험을 보편화하여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의 국어 교재에는 作文에 관한 單元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독립된 작문 교재를 가지고 독립된 작문지도를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작문 교육의 절대적인 부재 현상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작문 교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實用文과 論文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문제점들로는 국어의 특징 즉 음운, 어휘, 통사, 문장구조 등의 특징에 관한 지식과 작문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의 부재, 그리고 구태의연한 전통적 수사법이나 문제론이 아닌, 즉 문장의 장식과 꾸밈을 위한 문제론이 아니라, 글의 생명 및 영혼 그 자체로서 그리고 思惟의 本質을 이루는 文章의 樣式論의 현대적인 발전된 이론의 수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첨가한다면 잘 읽기 위해서는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하며 잘 쓰는 일이 바르게 읽는 일이라는 점에서 쓰기와 읽기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부재 현상을 들 수 있다.

## 2. 教授法 및 教育環境의 문제점

먼저 教授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어가 지니고 있는 국어학 분야와 국문학 분야의 二重 構造에 상응하는 담당 교수의 전공별 구분과 팀 티칭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주입식 교육 방법이 갖는 문제점이 있다. 세번째는 졸업정원제라는 문교정책에서 기인되는 공통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안 작성의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네번째로는 공동 출제와 상대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대학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합리적인 출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수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교육 환경에서 아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면서도 교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학점과 시간의 부족, 수강 인원의 대단위 편성에서 오는 過大 現象, 강의를 보조할 조교의 부족 등의 문제이다.

## IV. 國語教育의 綜合的 改善方案

이상에서 간략하게 고찰한 국어교육의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어교육의 목표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교재의 편성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다. 그 시안적인 구조를 제시한다면 국어학의 敎科單位와 作文敎科單位를 統合하여 교재의 前半部를 이루게 하고, 논설문을 文學理論과 詩學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批評的 설명문으로 대치하고, 이를 국문학 작품의 理解를 위한 敎科單位와 統合하여 後半部를 이루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을, 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학의 논설문을 수렴하는 일은 국어교육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다. 또한 文學이 인류 문화 전체가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창조적 예술이라는 점에서,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제시된 문학이론들 즉 문학과 역사, 문학과 정신사, 문학과 사회학, 문학과 심리학, 문학과 인류학, 문학과 記號學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文學理論과 文學의 樣式論을 현재의 논설문으로 대치하고, 이러한 논설문과 作品性에 있어 긴밀하게 연관되는 국문학 작품을 연계시키는 일은 「무엇을, 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二重의 構造는 일반적으로 지식의 백화점 진열장 같아 보이는 국어의 다채로운 敎科目들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게 하여 統一性을 부여하여 줄 것이다. 일차적으로 作文에 중심을 두어 훌륭한 여러 종류의 글을 例文으로 학습함으로써 讀解力을 作文力과 동시에 함양하고, 文學史의 價値가 뚜렷한 문학작품을 解釋하고 分析하는 힘을 기름으로써 동시에 창조적인 글을 짓는 힘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어교육 내용을 충실히 教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재의 前·後半에 상응하는 2학기 4학점의 강의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최대 40명이 넘지 않는 학습단위 편성과 적정수의 조교 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위하여 공동 교안의 작성과 강의 지침서 작성을 위하여 전체 국어 담당 교수의 긴밀한 협동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